



1



5

1 참가자들이 하나가 돼 신나게 어울리는 '지상최대의 물싸움'. 2 탐진강에서 해보는 뗏목 체험.

3 수영장에서 워터슬라이드의 쾌감을 만끽하는 참가자들. 4 물놀이장에서 마냥 즐거운 어린이들. 5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는 제트스키.

정남진장흥물축제 흥(興)! 흥(興)! 장흥(長興)이로다!

달 그대로 난장(亂場)이었다. 일상을 꺾 일탈의 짜릿한 쾌감과 환희! 새로운 질서(코스모스)를 위한 무질서(카오스)의 순간! 이를테면 창조적 무질서랄까. 축제 참가자들은 신명과 흥청거림 속에 대동 한마당을 함께 연출했다. 그리고 일상의 산뜻한 새 출발을 다짐했다. 물론 한여름 불볕더위는 '걸음아 날 살려라'는 듯 저만큼 달아나며 꼬리를 감췄다. 여름철에 열리는 대표적 물축제인 정남진장흥물축제 현장을 찾아가봤다.

글 임형두 기자 · 사진 임귀주 기자



2



3



4

신바람으로 하나 된 물싸움

“늘 준비 됐나요?” “예~!”
“그럼 놀아볼까요?” “예~!”

지난 8월 2일 장흥 탐진강에 있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 현장. 무대 위 사회자가 힘차게 외치자 무대 앞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이 일제히 목청 높여 화답한다. 이어지는 카운트다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친다. “9! 8! 7! 6! 5! 4! 3! 2! 1!”

이윽고 '고(Go)!'라는 함성과 함께 축제장은 아수라장으로 돌변한다. 사방에서 물대포들이 하늘 높이 동시에 발사되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신들린 듯 물총을 마구 쏘아대고, 바가지 물을 세차게 끼얹고, 상대를 들어 물통에 내던지는 등 난리법석의 요지경 속으로 빠져든다. 아빠의 무릎을 탄 아이도 물총을 쏘며 히히 깔깔 신바람이 났다. 친구들의 물세례로 온 몸이 흠뻑 젖은 아가씨 역시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대표적 여름 물놀이마당인 정남진장흥물축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려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스레 날렸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장흥물축제는 이 고장의 중심하천인 탐진강변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주제는 '물과 숲-휴(休)'. 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중 우수축제로 선정될 만큼 규모와 내실을 갖춘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성공적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축제 기간에 다녀간 관광객은 모두 35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상 최대의 물싸움'은 개막 이튿날 장흥 읍내를 뜨겁게 달군 '실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와 더불어 물축제의 양대 물싸움 프로그램 중 하나. 첫날을 빼고 축제 기간 내내 오후 2시부터 한 시간가량 매일 장흥교의 탐진강변에서 질탕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하나가 돼 기쁨을 만끽하게 했다. 장흥군수, 군의회 의장 등도 지위, 체면 따위의 외피를 모두 훌렁 벗어던진 채 축제판에 뛰어들어 참가자들과 감동의 혼연일체가 됐다.

물싸움에 이어 진행된 기차놀이. 가요 '여행을 떠나요'가 쩌렁쨍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모두 앞사람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기다란 기차 행렬을 여기저기서 만들어낸다. 사회자가 다시 힘차게 외친다. 이에 참가자들이 목청껏 대답한다.

“여행을 떠나볼까요?” “예~!”
“어디로요?” “장흥으로요~!”
“그럼 출발~!” “와~!”

여기저기서 순식간에 만들어진 인간 기차들은 축제장 이곳저곳을 휘저으며 신바람나는 곡예운전을 한다. 보기만 해도 절로 어깨가 들썩여지는 광경들이다.

물론 시나리오도 없었다. 리허설도 없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덩실덩실 춤추며 분위기에 절로 빠져들었다. 순천에서 고교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조문형(17)군은 “물축제를 처음 즐겨보는데 정말 신난다”며 그저 싱글빙글한다. 광주에서 자매 일가족과 같이 축제에 참가한 김은미(33)씨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좋아하니 나도 덩달아 더 신바람이 나요”라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1 붕어, 은어 등의 민물고기를 잡는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
 2 물축제 하이라이트인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3 장흥문학길 프로그램의 폰부스 밴드 공연.



물고기 잡기 등으로 내외국인이 한 마음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맨손 물고기 잡기'.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물고기 잡기에는 매일 1천 명 안팎이 참가해 짜릿한 손맛을 즐겼다. 장흥교와 예양교 사이에 설치된 사각의 거대한 어장 울타리 안에서 뱀장어, 붕어, 잉어, 메기, 은어 등의 민물고기를 맨손과 쪽대로 맘껏 잡을 수 있는 것. 특히 주말이면 '물반, 사람 반'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만큼 인파로 가득 넘쳐났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으로 시집왔다는 타이 녹풍(27)씨는 "머나먼 고향 생각이 많이 났어요. 냇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서요. 인근에 사는 고국 친구들을 불러 함께 즐기니 더욱 좋네요"라며 흡족한 표정을 짓는다. 광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온 최정미(9)양도 "처음엔 물고기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미끌미끌하니 참 좋아요"라고 해맑게 웃는다. 미국 신시내티에서 동갑내기 남편과 같이 왔다는 케일리 맥매너맨(28)씨 역시 "여섯 마리를 잡았는데 손맛이 그만이에요. 수영, 워터 슬라이더, 래프팅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즐겁고요"라며 연신 함박웃음을 터뜨린다. 무릎 위까지 퐁퐁퐁퐁 빠지는 강에서 물고기 잡기를 하다 보니 무더운 날임에도 온 몸이 후련해지는 청량감을 덤으로 얻는 일거양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만큼 강물이 맑고 시원했다. 물고기 잡기의 현장을 관리하는 장흥군청 해양수산과 강민수 자원관리담당은 "축제 때가 되면 탐진강 상류에 있는 장흥댐에서 심층 1급수를 일정하게 흘려보내기 때문"이라면서 "강물이 섭씨 18도의 수온에 맞춰져 있어 그만큼 편안하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귀띔한다.

이처럼 장흥은 물축제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보기 드물게 호수와 강, 바다를 두루 끼안고 있다. 호남의 3대 하천인 탐진강(길이 55km)은 영암에서 발원해 장흥을 거쳐 강진만으로 흘러가는데 장흥의 북쪽에 있는 장흥댐은 전남의 1개 시와 7개 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만큼 크고 넉넉한 호수를 품고 있다. 남으로는 드넓은 득량만을 끼고 있어 풍부한 물산을 제공한다. 이 같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매년 여름에 열리는 게 바로 장흥물축제다.

호수, 강, 바다 두루 갖춘 강점 살린 축제

올해 물축제는 젊음과 시원함, 유쾌함이 묻어나는 축제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여름이군(郡) 더우면(面) 가리(里) 물축제 1번지 장흥로(路)'라는 이색적인 주소를 표어로 내세웠다. 그리고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를 비롯해 지상 최대의 물싸움, 맨손 물고기 잡기, 수중 줄다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례로 진행

했다. 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물놀이장, 우든 보트, 수상 자전거, 카누 등 물놀이 시설들에서 다채로운 체험도 즐길 수 있었다. 이중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지난해 첫선을 보여 대박을 터뜨린 대표적 프로그램. 장흥군민회관에서 출발한 참가자들은 중앙로 시가지를 거쳐 탐진강변 축제장에 이르는 약 1km 구간에서 거대한 물싸움 퍼레이드를 신명나게 펼쳤다. 올해 참가 인파는 관광객과 지역민 등 6천여 명. 이들 참가자는 물호스와 물총, 물통 등 온갖 도구를 이용해 서로에게 환호작약의 물세례를 퍼부으며 축제 분위기에 맘껏 젖어들었다.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추상이 관광축제담당은 "살수대첩 퍼레이드는 태국 방콕의 송크란 축제 등을 벤치마킹해 도입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먹힐까 고민도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아 첫해부터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지난해에는 참가자들이 일제히 출발하며 물싸움 등으로 퍼레이드를 벌이게 했으나 올해는 골목골목에서 쏟아져 나와 거리에서 합류케 함으로써 생동감을 더욱 살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장흥물축제는 장흥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최대한 살린 프로그램을 날로 강화해가고 있다. 문화와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의 저변이 넓어 '예향(藝鄕)'으로 불리는 장흥은 특히 강변의 정자문화에서 유래한 문학적 전통이 꽤 깊다. 조선조에 가사문학의 효시였던 '관서별곡'을 쓴 기봉 백광홍이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현대에 들어선 송기숙, 이청준, 한승원, 이승우, 이대훈 등 유명 문학인들이 대거 배출됐다. 한승원씨의 딸로 지난 5월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아 세계적 작가로 거듭난 한강씨

역시 장흥에 문학적 뿌리를 두고 있다. 장흥물축제는 이 같은 문학적 전통과 저력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들도 선보였다. 8월 2일과 3일 진행된 '장흥 문학길을 걷다'와 2일 밤에 열린 관련 축하공연 등이 그것이다. 중앙대 김선두 교수 등 미술작가의 전시회 '장흥 문학길'도 열렸다.

'어머니 품 같은 장흥' 이미지 드높여

젊은 층을 겨냥한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의 강화도 눈에 띄었다. 참가자들이 단순히 눈으로 보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체험케 해 축제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김현복 정남진 장흥물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파티'와 '별밤수다쟁이'에서 보듯 젊은이들의 열정과 낭만을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더욱 강화했다"고 들려준다.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말해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7월 30일과 31일 장흥교 상류에서 펼쳐진 '수중 줄다리기'였다. 장흥의 전통민속놀이인 고싸움에서 착안한 수중 줄다리기는 참가자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물속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화합과 단결, 어울림과 신명이라는 축제의 특성을 극대화했다. 지난해까지는 장흥의 읍·면·동 대항전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관광객들도 참여케 해 모두가 일체감으로 한데 어울리도록 했다.

축제장 현수막 중 유독 눈길을 끈 문구는 '어머니 품 같은 장흥'. 장흥군의 슬로건이기도 한 이 문구는 읍내 곳곳은 물론 공무원들의 명함에도 새겨져 있어 더욱 이채로웠다. 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과 어머니를 한 묶음으로 동시에 연상시킨다. 지구와 인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물은 모든 생명의 바탕이자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에너지. 어머니와 물은 그만큼 보편적 생명애의 상징성이 크다. 장흥군은 물축제 개최와 더불어 어머니 테마공원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우연인지 모르나 장흥의 군의회 의장은 여성이며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군의원의 43%가 또한 여성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이렇듯, 호수와 강과 바다를 두루 끼안고 있는 장흥에서 물축제가 열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장흥버스터미널 앞 표지석의 글귀 '상선약수(上善若水)'는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할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 문구는 '가장 착한 것은 물과 같다'는 말로 물의 깊고 강한 힘을 함축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물은 성스러운 생명을 담고 있는 동시에 신나는 놀이와 즐거운 추억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며 "참가자 모두가 물이 주는 생명의 에너지 안에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❶

